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젊은이주일입니다. 젊은이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탄생을 감사하며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 오후 2시부터 사랑방탁구대회 예선이 있습니다.
- 어제 공동체학교 선교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주는 자연예배로 공동체 마당에서 예배합니다. 공동식사는 방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 다음 주 오후에는 사랑방탁구대회 결선이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전체 교사회의를 29일(금) 오후 5시 30분에 모입니다. 안건은 35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관한 논의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어진 전도사 · 이어람 집사 · 이어직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연갑 집사 (생일 감사)
임세진 청년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21 호

2026년 5월 2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연보(捐-버릴 補-도움)

바자회는 바자(Bazaar)와 회(會)자를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자(Bazaar)는 그 어원이 페르시아어에 있으며 '시장'을 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이나 자선, 친목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임시 시장이나 자선 장터를 뜻합니다. 목적이 자선 기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단체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자원봉사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이나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며 학교나 복지단체, 종교 기관에서 자주 개최합니다. [나무위키 바자회]

기부(Donation)는 자선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현금, 물품, 재능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눔의 실천이자 타인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위키피아 기부] 기부의 형태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일시 기부나 정기 후원을 말하는 현금기부가 있습니다. 의류, 책, 생활용품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여 판매하여 수익금을 보내거나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예술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대가 없이 봉사하는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9-10절에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나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 구석까지 다 줍지 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약의 고후 8장 1-15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마케도니아와 갈라디아, 고린도 같은 이방 지역 교회에서 도움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큰 환난과 시련,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2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중앙에는 메인 스퀘어가 있고 그 위쪽에는 스탠포드 메모리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 앞부분을 말하는 파사드에는 모자이크로 된 벽화가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유명 공방 살비아티에서 제작한 유리 모자이크입니다. '의인을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자인 제인 스탠퍼드가 1893년 사망한 남편 릴런드 스탠퍼드를 추모하기 위해 유럽 여행 중 감명받은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를 도입해 완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 덕목을 인물들과 함께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 핵심 덕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Faith), 소망(Hope), 사랑(Love),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선(Charity)입니다. 종교행사나 예배시 발생하는 자율 헌금 및 기부금은 전액 지역 사회의 자선 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 초기부터 학생들의 학업 뿐 아니라 내적인 도덕적 가치와 이웃을 향한 봉사를 함께 갖추기 바라는 설립자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에 자원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과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가진 것을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투쟁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는 일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상황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남기고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나의 착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부나 바자회, 현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집니다. 개인의 부유함으로 자신의 미덕으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여러분은 이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 로마서 12장 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00 406 / 505
기도 :
성경 : 열대상 1장
제목 : 믿음의 족보

1. 내용: 인류의 족보 중 믿음의 족보(What)
<문단구분>

- 1~4절 아담에서 노아까지
- 5~23절 셈, 함, 야벳의 후손들
- 24~28절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 29~33절 이스마엘의 후손들
- 35~42절 에서의 후손들
- 43~50절 에돔의 왕들
- 51~54절 에돔의 족장들

2. 의미: 언약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Why)

- 1) 인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함께 흘러간다.
- 2) 혈통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믿음의 계보는 이어진다.
- 3)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3. 적용: 하나님의 구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How)

- 1)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열매를 맺자
- 2) 믿음의 열매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을 남기자
- 3) 진정한 권세를 약속 받았다는 것을 믿자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짐을 대충 아무 곳에나 두고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인사를 하면서 어떤 장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준비하면 좋을지를 생각합니다. 각종 테이블과 커터칼, 멀티툴, 가위, 여러 종류의 펜, 작은 손전등, 개인 인이어(공연 중 가수가 반주와 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 및 이어폰을 통칭) 등을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작은 가방을 챙기고, 무전기를 차고 일을 시작합니다. 장비를 옮기고 마이크는 누가 꺼낼지, 인이어 세팅은 누가 어디에 할지 고민합니다. 마이크는 스탠드에 걸고, 각각 자리에 두고, 인이어 세팅 후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연주자들이 악기 세팅과 연주 준비를 마치면, 소리를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킁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베이스 연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할 소스 있을까요? 워 멘트를 반복하며 사운드 체크를 마치면,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를 시작하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다가가서 상황을 묻고 돕습니다. 모두 문제없이 편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리허설을 마치고 진짜 공연을 시작합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리허설과 마찬가지로 무사히 모두가 편안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살피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저는 인이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가수과 같은 인이어로 들으며 리허설 때와 달라진 것은 없는지, 안 들리는 부분은 없는지 표정을 살피며 확인합니다.

가장 무서울 때는 저를 쳐다보며 웃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불편해서 웃는 건지, 신나서 웃는 건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늘 심장 떨리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해지죠. 모두가 즐거운 얼굴로 아무도 저에게 도움의 눈빛을 보내지 않고 마지막 곡까지 끝나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모두 편안히 공연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저도 마음을 놓고 음악을 즐깁니다.

날씨가 풀리고, 행사 시즌이 시작되니 이런 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중입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올 초 일을 조금 줄이며 주일에는 최대한 교회에 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늘 잊지 않고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밤,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잊지 않고! 다시 뵙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평안하시길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임세진 젊은이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119 : 9-16 인도자
3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마가복음 11 : 25 인도자
183 다함께
다함께
이예은 젊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파편적인 삶에서 지체의 삶으로 ” 정태일 목사

로마서 12 : 1-8 장성아 젊은이
191 젊은이사랑방
< 성 찬 식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김정흠 젊은이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박예영 조이서 / 봉헌위원 : 김범준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주님의 관계를 강하게 하시고
지체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파편적인 삶에서 지체의 삶으로

지체로서의 삶에 힘쓰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 12장 생활편 교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1>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는 원리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교훈합니다.<2> 마지막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지체로서의 삶에 힘쓰기를 당부합니다.<3-8>

파편적인 삶인가, 지체의 삶인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의 풍조는 무엇이고?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체로서의 삶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풍조는 파편적 삶이고,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지체로서의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파편적인 삶에서 지체의 삶으로.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그 문제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파편적인 삶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하심이 교회의 유기적 관계를 강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지키는 각 가정마다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며, 젊은이들이 지체의 삶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영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에 본 전시는 '리나, 슈퍼히어로'라는 전시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리나가 플라워 파워 히어로가 되어 쓰레기에서 태어난 쓰레기 괴물을 무찌르고 꽃을 피우는 이야기의 그림 전시였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서 꾸러기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꽃을 그리고 리나처럼 꽃의 요정이 되어 재밌게 놀기도 했습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꾸러기들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침에 와서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꾸러기들은 바자회에서 주로 엄마, 아빠와 같이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인형과 가방 그리고 예쁜 것들을 샀습니다. 예쁜 눈으로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는데 너무 귀여운 꼬마 탐정 같았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특별히 꾸러기와 어린이가 같이 댄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악무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에 댄스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꾸러기들이 너무 신나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틈나면 같이 노래 틀고 춤추면서 연습도 했습니다. 모두 열심을 다해 아주 즐거운 바자회였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지난주에는 겉으로 보기에 오랜만에 행사도 휴일도 없는 차분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사랑방공동체학교 바자회'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이 나날이 차오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꾸러기와 함께 할 바자회 공연 준비를 조금씩 했구요. 어린이 벼룩시장 물품을 챙겨 와서 반별로 모여 앉아 가격 책정하기,

뾰족자리와 돈 통을 챙겨올 담당 정하기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하루 전인 금요일 점심식사 후에는 마니또를 뽑아서 누가 누구에게 뭘 몰래 사줄지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바자회를 향한 마음을 키우다가 드디어 토요일! 기대와 설렘을 팡~~! 터뜨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용돈 3만 원으로 자신이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멋쟁이 선배님들이 준비한 이벤트 마당에 열심히 참여도 하였습니다. 꾸러기와 함께 악무의 '소문의 낙원' 댄스를 수줍지만 배운 대로 잘 선보이고, 벼룩시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물건을 사고팔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의 이런 마음과 열심들이 모여서 공동체학교를 위한 바자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 공동체 식구들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교육관 증축공사를 위한 사랑방공동체학교 바자회를 준비하는 분주한 한주를 보냈습니다.

바자회에서 선보일 워십댄스 '달리기' 공연을 위해 멋쟁이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틈틈이 가졌습니다. 여러 동작에 합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까지 맞춰가는 더디지만 하나 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 이외에도 바자회를 위한 물품 분류, 테이블 배치, 놀이 진행 등 멋쟁이들의 손길이 곳곳에 닿았습니다.

이렇게나 성실히 맡은 일에 임하는 멋쟁이들을 위해서 금요일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사랑의 저녁식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정성껏 준비한 바자회 날,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교육선교를 위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조민아 >

바자회 잔치

매년 바자회 전에는 물품을 내놓기 위해 집안물건을 정리합니다. 주로 옷가지나 생활용품들을 찾아내기를 합니다. 진짜 주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집안을 매의 눈으로 훑어봅니다. 아깝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이럴 때 신이 날 것입니다. 처박혀 있다가 사용해 줄 주인을 찾아 나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연예배당입구에는 바자회 물건들이 벌써 많이 놓여있습니다. 멋쟁이들이 막 물건 분류를 시작하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장정같은 남자 멋쟁이들이 책상과 의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엄마들이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공동체식구들은 교회주방과 그루터기주방에서 김치 담그기, 각종 소스와 밑반찬, 포장상품들을 만드느라 일주일 전부터 밤늦도록 움직였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음식과 물건들을 팔고 멋쟁이들은 물품선등 여러 가지 이벤트 코너를 맡아서 재밌는 활동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마을분들과 무림방 어르신들, 교회분들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먹을거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이번엔 멋쟁이 대선배 동문들이 많이 와서 함께 교가 부르기도 했는데 동문들의 존재감으로 운동장이 꽉 차는 것 같았습니다. 바자회의 하이라이트는 멋쟁이와 어린이들 공연입니다. 모든 코너가 잠시 쉬면서 환호하며 관람하는 라이브공연이지요. 그저 다 이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니깐요.

잊지 않고 오는 졸업생 부모들끼리도 오랜 만에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기쁨으로 모여진 바자회기금은 교육관 증축과 시설보수로 쓰여진다니 그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바자회는 잔치같아요.

그루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405장, 337장, 335장
성 경 : 고린도후서 4장 13-18절
말 씬 :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소년병 전쟁범죄가 줄어들도록>
전 세계에서 활동중인 12세 이하의 청소년 병사의 규모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자체로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지만, 종교 가치와 경제적 손익계산으로 그들의 작은 체구는 계속해서 이란을 비롯한 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 사회 속에서 반기독교적 문화가 커지는 가운데, 신앙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기를.
* 심한 경쟁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다가오는 성령강림절/젊은이주관예배를 위해
2) 다가오는 바자회를 위해
3) 여러 가지 수고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더위와 흐린 날씨가 번갈아 오면서 여름을 느끼게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밭에 물을 주거나 데크를 수리하거나 화단을 꾸미는 등, 식구들의 수고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진행과 마무리까지 함께 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수고와 도움으로 함께해주셔서 참 의미 깊고 보람찬 한 때로서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이어진 전도사 >